

2019년 3월 1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종목 장세 이어지며 강보합 마감 금융, 에너지 업종 강세 Vs. 바이오, 반도체 업종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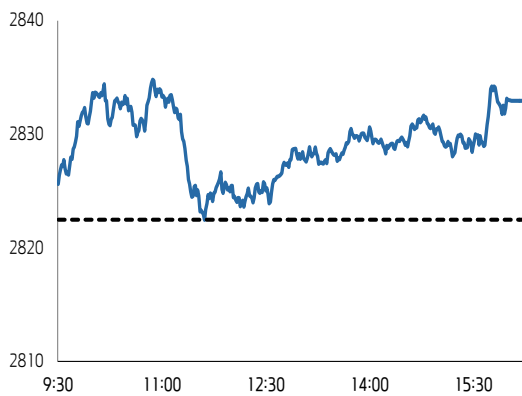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도이체뱅크 및 코메르츠뱅크 합병 검토 소식으로 강세를 보인 금융주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이 상승 주도. 그러나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과 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한 때 하락 전환하는 등 보합권 등락(다우 +0.25%, 나스닥 +0.34%, S&P500 +0.37%, 러셀 2000 +0.67%)

미 증시는 개별 업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종목 장세가 펼쳐짐. 금융주는 독일 대형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경쟁사인 코메르츠뱅크와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자 투자심리 개선되며 강세. 도이체뱅크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전략적인 합병을 검토 중이다” 이라고 발표. 코메르츠뱅크도 “잠재적인 합병에 대해 논의를 시작 했다” 라고 언급. 최근 몇 년간 영업 손실로 구조조정 해왔던 두 은행이 합병이 진행 된다면 독일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메르켈 총리가 언급 하듯 이번 합병은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이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로 이어짐. 다만, 독일 금융노조는 이번 합병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실제 합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국제유가가 WTI 기준 59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 업종은 강세. 특히 OPEC 이 6월말까지 감산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국제유가 상승 요인.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이 직원들의 의료 비용 상승 문제는 아마존, JP 모건과 1년 전 만든 'Haven'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고 언급. 최근 미 상원에서 약가 급등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렌 버핏의 발언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 최근 미국에 이어 영국, 네델란드 등 각국이 약가 인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179.49	+0.16	홍콩항셱		29,409.01	+1.37
KOSDAQ		753.13	+0.64	영국		7,299.19	+0.98
DOW		25,914.10	+0.25	독일		11,657.06	-0.25
NASDAQ		7,714.48	+0.34	프랑스		5,412.83	+0.14
S&P 500		2,832.94	+0.37	스페인		9,409.10	+0.72
상하이종합		3,096.42	+2.47	그리스		725.41	+0.46
일본		21,584.50	+0.62	이탈리아		21,234.61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강세

JP모건(+0.60%), 웰스파고(+2.11%), 골드만삭스(+2.12%) 등 금융 섹터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했다. 특히 도이체뱅크(+4.15%)와 코메르츠뱅크(+7.21%)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M&A 소식도 금융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애플(+1.02%)은 새로운 아이패드 등을 깜짝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1.74%)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자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월마트(+1.26%), 코스트코(+1.28%), 타겟(+1.59%) 등 소매 유통 업체들도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엑손모빌(+1.16%), EOG리소스(+3.46%)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디즈니(-1.60%)는 지난 주말 캡틴마블이 박스오피스에서 2억5천만달러를 돌파 했으나 매출 출회되며 하락 했다. 보잉(-1.77%)은 737 맥스 승인과 관련 교통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일부 투자은행들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페이스북(-3.32%)도 니드햄이 높은 규제 위험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했다. 바이오젠(-1.28%) 등 바이오 업종과 메드트로닉스(-2.03%) 등 헬스케어는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압박이 부각되며 매출 출회되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42%	대형 가치주 ETF(IVE)	+0.62%
에너지섹터 ETF(OIH)	+3.18%	중형 가치주 ETF(IWS)	+0.49%
소매업체 ETF(XRT)	+0.68%	소형 가치주 ETF(IWN)	+0.70%
금융섹터 ETF(XLF)	+1.01%	대형 성장주 ETF(VUG)	+0.17%
기술섹터 ETF(XLK)	+0.42%	중형 성장주 ETF(IWP)	+0.5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1%	소형 성장주 ETF(IWO)	+0.66%
인터넷업체 ETF(FDN)	-0.04%	배당주 ETF(DVY)	+0.27%
리츠업체 ETF(XLRE)	-0.5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4%
주택건설업체 ETF(XHB)	+0.6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9%
바이오섹터 ETF(IBB)	-0.25%	미국 국채 ETF(IEF)	-0.13%
헬스케어 ETF(XLV)	-0.15%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06%	물가연동채 ETF(TIP)	-0.01%
반도체 ETF(SMH)	-0.27%	Long/short ETF(BTAL)	-0.7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1.57	+1.39%	+3.06%	+1.17%
소재	347.89	+0.16%	+0.42%	+1.90%
산업재	629.74	+0.87%	+0.27%	-0.96%
경기소비재	883.85	+1.05%	+2.08%	+2.17%
필수소비재	568.68	+0.27%	+1.17%	+1.82%
헬스케어	1,063.83	-0.15%	+1.87%	-0.91%
금융	447.08	+1.03%	+3.02%	+2.13%
IT	1,286.87	+0.41%	+3.07%	+5.49%
커뮤니케이션	157.29	-0.80%	-0.37%	+2.62%
유틸리티	294.20	-0.41%	+0.68%	+4.44%
부동산	219.01	-0.51%	+0.11%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개선세 뚜렷한 종목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9% MSCI 신흥 지수 ETF 는 1.1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290 계약)에 힘입어 0.85pt 상승한 281.60pt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1.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뚜렷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속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 하면 '종목 장세'다. 이는 성장을 둔화와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바닥론, 무역협상 기대, 비둘기적 각국 중앙은행 정책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국의 12 개월 Fwd EPS 추정치가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의류 등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또한 하향 조정 폭이 멈추는 등 기업이익 둔화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1 분기 S&P500 영업이익 하향 조정 둔화 또한 진정되는 등 최근 각국 기업이익이 둔화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일 중국 증시가 2% 넘게 급등한 요인 중 하나가 예상실적 발표 기업중 70%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이나, 이익 둔화가 진정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견조한 흐름

3 월 미국 주택시장지수는 예상치(63) 보다는 낮았으나, 전월과 같은 62 로 발표되었다. 최근 주택시장 지수가 하향 조정되다가 차츰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특히 30 년 모기지금리는 지난 11 월 4.94% 보다 크게 하락한 4.31%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주택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경신

국제유가는 OPEC 이 6 월말로 감산합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한편, 오클라호마 쿠싱지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 결과 국제유가는 59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 했다.

달러화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하원 의장이 메이의 세번째 브렉시트 표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1 월 수출이 전년 대비 2.5%, 수입도 3.4%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무디스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점도 유로화 강세 요인 중 하나 였다.

국제금리는 FOMC 를 앞두고 상승 했다.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와 브렉시트 관련 세번째 표결을 영국 하원의장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여파로 하락 출발 했다. 더불어 일부 중국 언론이 미-중 정상회담이 6 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독일 대형 은행들의 M&A 와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유지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금은 달러 강세폭이 주춤해졌으나, FOMC 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4%, 철근도 1.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09	+0.97	+4.05	Dollar Index	96.488	-0.11	-0.75
브렌트유	67.54	+0.57	+1.44	EUR/USD	1.1341	+0.13	+0.85
금	1,301.50	-0.11	+0.81	USD/JPY	111.41	-0.06	+0.18
은	15.322	-0.01	+0.31	GBP/USD	1.3253	-0.28	+0.78
알루미늄	1,920.50	+1.24	+3.98	USD/CHF	1.0009	-0.12	-0.96
전기동	6,425.00	-0.09	+0.28	AUD/USD	0.7105	+0.28	+0.50
아연	2,781.00	-0.32	+1.57	USD/CAD	1.3337	+0.01	-0.43
옥수수	371.50	-0.47	+2.62	USD/BRL	3.7906	-0.64	-1.30
밀	456.75	-1.19	+6.59	USD/CNH	6.7199	+0.09	-0.19
대두	905.75	-0.38	+1.77	USD/KRW	1132.10	-0.46	-0.14
커피	96.85	-0.97	-0.36	USD/KRW NDF1M	1131.10	-0.27	-0.0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98	+1.08	-4.14	스페인	1.154	-3.10	+0.30
한국	1.997	+0.50	+0.90	포르투갈	1.258	-4.70	-5.60
일본	-0.035	-0.10	-0.20	그리스	3.731	-5.40	+2.90
독일	0.083	-0.10	+1.40	이탈리아	2.453	-4.00	-10.50